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 선거제도

종교단체의 모범적인 선거제도는 없는가. 종교단체의 선거는 포교이자 곧 수행이다. 세속적 형태와는 달리 종교적 의식으로 승화시켜 세간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를 촉발시켰던 총무원장 선거제도만 해도 지나치게 세속의 선거법을 모방함으로써 승가집단 스스로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일부 다른 불교 종단의 선거제도는 조계종과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태고종은 총회개시일 임후보하고 그 자리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간결한 방식으로, 천태종은 총회에서 후보를 단일화해 추대하는 방식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진각종 역시 구성원 총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등 세 종단 모두 선거가 아닌 후보단일화를 통한 추대 형식을 띠고 있다. 이들 종단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식이 "전통과 중흥"에 기초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가톨릭의 경우는 전국 15개 교구장이 각 교구별 주교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역시 추대형식이다보니 선거전 같은 것은 없다. 사제평의회나 교구합사와 같은 의견수렴 및 조정 기구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같은 형태는 전통적인 것이며, 가톨릭인들은 전통을 존중한다.

모 종단의 관계자는 "조계종의 경우 25개 교구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받아 원로회의에서 결정해 추천하고 중징스님이 이를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전통과 중흥에 맞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재에 응했던 모든 스님과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제도보다는 "자질론"을 거론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육성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러나 부족한 제도라도 협력하고 존중한다면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마땅히 고쳐져야 하지만 그보다는 스님들의 '유(有)소유' 정신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 종단-단체 '이미지 통일화'

### 조계종·진각종·종단협 올내 문장개발 마무리

조계종과 진각종, 종단협의회가 종단과 단체를 상징하는 문장(紋章)개발 작업을 벌인다. 문장개발 작업은 종단 및 단체의 이미지를 통일해 대외 인식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업무의 획일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에 대한 통제와 사찰사양의 등록 활성화 등 부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작업을 시작한 조계종은 최근 의뢰업체인 안그라픽스(대표 안상수)로부터 1차 시안을 받아 검토했다. 조계종은 이 1차 시안이 종단 이미지를 담아내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통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계종은 문장사업과 관련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진각종은 1년내에 문장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밀교종단의

## "금강산 유적 최대한 보호"

### 정부·현대, 조계종에 답신

조계종이 2월 4일 금강산 개발관련 자연 및 문화유산 훼손을 우려, 통일부와 현대측에 공문을 보낸데 대한 답신이 전달됐다.

통일부는 조계종에 보낸 2월 8일자 공문을 통해 "정부는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종합개발 계획이 금강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계종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의 (주)아산(대표이사 김은규)도 22일자 조계종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밝혔다. 현대측의 공문은 △금강산 내에서의 개발 최대한 자제 △최소한의 관광시설(스키장 콘도 등)은 금강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 △금강산 지역내의 어떠한 유적이나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신계사를 포함한 불교 문화재 및 유적의 보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구성중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금강산 개발과정을 지켜보며 문화유적과 문화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 거조암 나한상 "한국인의 혼을 찾아서"

은혜사 거조암(주지 해해) 영산전(국보 14호)에 봉안된 나한님 다섯분이 유럽나들이에 나섰다. 오는 6월부터 내년8월까지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순회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떠나기 앞서 2월25일 거조암에서 봉행된 이송환송법회, 꽃가마에 실린 나한님은 "제대성종이 독송되는 가운데 영산전을 한바퀴 돌아 돌아와 행사장에 모셔졌다. 꽃가마 하나당 백명씩 모두 5백명이 동원됐으나 직접 가마를 멘 불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고 이구동성. 한 스님은 "나한님이 절심공양을 너무 많이 드셨나 보다"며 웃기도.

백안의 유럽인들이 천진도인들을 천견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 과안대소하거나 코믹한 모습에서 탈속의 여유와 깨달음의 평범함을 느낄수 있을까.

나한님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머무르다 국보 83호 금동아미타불상(가야산상을 포함한 국보15점 보물27점 등 총34점)의 우리 문화재와 함께 오는 4월 출국했다가 내년 가을 귀국한다.

이은호 기자  
 (yhl@buddhapia.com)



○거조암 나한님들이 유럽 나들이를 위해 영산전을 떠나고 있다.

## 해인골프장 또 범정공방

### 공원공단 공기 연장 불허...가야개발 행정소송 제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인골프장의 공사기간 연장을 불허한데 대해 가야개발(대표 김선국)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인골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해인골프장 사업주인 가야개발은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담당 강원구 부장판사)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피고로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재심청 불허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도에도 확고 시한인 4월 7일 이전에 연기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은 99년 12월 15일 해인골프장 사업주인 가야개발이 제출한 사업시행기간 연장신청을 계속시설의 설치이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착수기한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불허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해인골프장은 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야개발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인골프장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교육부장은 "지난 해 8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국립공원 구역내에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부각시켜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yhl@buddhapia.com)

## 소적새 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최약산 소적새 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적새 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적새마을의 보금자리 건설을 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적새 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적새 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풍채대비의 무량 복건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점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30  
 △점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점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체국 011809-0382390  
 ● 농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후원해드립니다.

## 북한 어린이 돕기 123일 백두대간

123일간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꽃도라지 심고  
 내에 버려진 쓰레기 치우며

### 백두대간 (白頭大幹)

우리나라 땅을 돌, 서포르며 장라들은 산물이 이름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인식하던 나리 명의 산물기(山物記)  
 하나리 (大幹)와 하나리의 길진(正幹).  
 그리고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이루어졌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부근에 이르러 서쪽으로 기울어 지리산까지 이르는 거대한 산맥이다.  
 백두대간은 서쪽으로 해안선까지 많은 골과 돌을 이루며 13개의 정맥을 지니고 있다.  
 아물산줄기와 불주기의(불주기의)로 우리의 언어, 풍속, 지역의 정체성이 되는 바탕이 되었고, 문화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백두대간은 그 근본이 된다.

출발 / 1999년 3월 25일(목요일) 오전 10시 지리산 천왕봉  
 마침 / 1999년 7월 25일(일요일) 백두산 천지  
 참조 / 참가자 개인 등산 장비 지참

북한 어린이 돕기: 우체국/013045-0102143(계좌번호) · 예금주 / 심시일반(十元一飯)  
 선에 도라지 심는 사람들 : 02)823-0014 · 011-442-3838